

예능 '노는브로' 시즌2 출연 도쿄올림픽 펜싱 금메달 구본길

“펜싱선수 아닌 인간적 매력 보여 줄 것”

“금 따니 호칭 달라져” 너스레
박용택·전태풍·조준호·백지훈 출연
올림픽 열기 이어갈 지 주목

운동밖에 몰랐던 선수들이 제대로 한 번 돌아보겠다는 의지로 두 번째 하프타임을 준비했다. 2020 도쿄올림픽으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운동선수가 예능에서 활약 중인 상황에서 '노는브로2'가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채널은 23일 오후 8시 50분 예능 '노는브로' 시즌2를 첫 방송한다. 이번 시즌에는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한 '어벤져스' (펜싱 어벤져스)의 구본길과 더불어 전 야구선수 박용택, 전 농구선수 전태풍, 유도코치 조준호, 전 축구선

수 백지훈이 함께한다. 이날 온라인 제작발표회에는 조준호를 제외한 모두가 참석했다. 도쿄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구본길은 "금의환황한 구본길"이라며 "시즌1에서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엔 짧은 시간이었다. 이번 시즌에서는 펜싱 선수가 아닌 인간 구본길의 모습과 매력을 더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따고 오니 멤버들 반응은 그대로인데 제작진이 좀 달라졌다. 전에는 '구본길 선수'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구본길 선수님'이라고 호칭이 달라졌다. 그리고 나보다 내가 가져온 메달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박용택은 "첫 번째 하프타임에서도 큰형을 맡았고, 두 번째에서도 큰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노는브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고, 운동선수 출신들이라 승리욕도 뛰어나고, 리얼리

티로 보여줄 것도 많아 1200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전태풍은 "시즌1을 찍으면서 좋은 길이 주어졌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다. 원래처럼 솔직하게 (시즌2도) 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합류한 백지훈은 "좋은 형들과 동생들을 만나게 돼 기쁘다. 축구만 해왔는데 방송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축구 해설을 맡은 후 힘들었을 때 (노는브로2) 제의가 왔다. 방송이 축구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다"고 인사를 했다. 이에 박용택은 "(운동에 비하면) 방송은 거저먹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박지은 PD는 "시즌1에 이어서 또 연출을 맡을 수 있어서 영광이다. 시즌2에서 '더 할 이야기'가 있냐'는 반응을 본 적 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찬원 신곡 '편의점' 오늘 발매 “해학의 미 담은 정통 트로트”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3위 미(美)에 오르며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 이찬원이 신곡으로 팬들을 찾는다. 24일 매니지먼트사 뉴에라프로젝트에 따르면 이찬원은 25일 오후 6시 신곡 '편의점'을 발매한다. 이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MBC 드라마 '꼰대인턴'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시절인연'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정식으로 공개하는 신곡이다.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소리가 두드러진 '편의점'은 퓨전 요소 없이 담백한 정통 트로트 사운드를 구현한 곡이다. 이찬원은 이날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가수, 앵커 등으로 변신하며 구성된 음색으로 "홀로 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 우리 동네 편의점"이라고 노래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정통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쾌하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우리네 인생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해학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원은 오는 26일 오후 7시에는 '미스터트롯' 공식 브이라이브 채널에서 단독 라이브 방송을 하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진희·예지원, KBS 사극 '태종 이방원' 합류

5년만에 부활 대하사극... 12월 방송
원경왕후 민씨·신덕왕후 강씨 연기

KBS 1TV는 5년 만에 부활하는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 배우 박진희와 예지원도 합류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진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남편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원경왕후 민씨를, 예 지원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를 연기한다. 앞서 태종 이방원 역에는 주상욱이, 태조 이성계 역에는 김영철이 캐스팅됐다. '태종 이방원'은 고려라는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던 여말선초(麗末鮮初) 시기, 누구보다 조선의 건국을 앞장섰던 리더 이방원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한다. /연합뉴스

제작진은 "정통 대하사극에 목말라 있던 시청자들의 간절함 바람과 염원에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기획·제작하게 됐다"며 "역사적 인물인 이방원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본다는 점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알아보고,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대화의 장이 되는 드라마가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시청자와 호흡하겠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연출은 '기막힌 유산', '공부의 신', '솔약국집 아들들', '제국의 아침' 등을 만든 김형일 PD가, 대본은 '최강 배달꾼', '조선 총잡이', '전우' 등을 쓴 이정우 작가가 맡는다. 오는 12월 방송 예정. /연합뉴스



주상욱, 김영철, 예지원, 박진희(왼쪽부터 시계 방향)



조정석, 이병헌·하지원 이어 'SNL 코리아' 뜬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는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SNL 코리아'에 배우 조정석이 호스트로 출연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정석은 94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엑시트'부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매력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이며 자리를 굳건히 한 배우다. 조정석은 "SNL 팬으로서 호스트로 출연하게 되어

기쁘고, 기대된다. SNL 제작진, 크루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즐거운 웃음과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다음 달 4일 밤 10시 처음 공개되는 'SNL 코리아'에는 앞서 배우 이병헌, 하지원이 출연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연합뉴스